

김 총리 “새만금 ‘희망고문’ 마무리”

5월 종합지원계획 발표 “현대차 9조 투자와 결합 새만금·전북 혁신 시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새만금에 대해 국민과 전북 도민이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계획을 재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오는 5월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계획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킷오프 회의’를 통해 “오늘 회의는 새만금과 전북의 대혁신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주식회사 하림지주회장), 최근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경사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새만금과 전북의 대혁신이, 일종의 융합 장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것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수도 성장과 지방수도 성장, 두 가지가 새만금과 전북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되면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매우 큰 역사적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챙겨가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킷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킷오프 회의’를 통해 “오늘 회의는 새만금과 전북의 대혁신을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주식회사 하림지주회장), 최근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매우 의미 있는 경사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새만금과 전북의 대혁신이, 일종의 융합 장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챙겨가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지역에 계획된 현대차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향후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에너지 생산·활용,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산업 실증 등과 관련된 규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해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또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투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기업에 보다 적합한 투자 환경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전북, 새만금청 외에 각 부처에도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담당자를 지정해 초속도전으로 추진하겠다”며 “새만금개발과 현대차 투자, 전북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대혁신 종합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가능한 것은 5월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시스

국민생활 공공서비스 드론 활용 확대

국토부, K-드론배송 상용화·레저 국제화 등

전북 출신인 김원국 국토교통부 장관(시진)은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



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 사업을 진행한다.

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인·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

특히 상주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알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봉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

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

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역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제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인프라를 위한 부품(모터·배터리)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도, 특별지자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나?”

오현숙 도의원, 도정 질의서 “관할권 갈등 조정 역할 부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1일 진행된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갈등과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정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며 중앙부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이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소송 대응 비용은 각 시군 예산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과 법적 대리인 간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미 예산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시간까지 비공개라고 답하는 것은 새만금 관할 갈등에 대한 전북도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거나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전북 안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도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가 새만금 발전을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제안하며 시군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대해 “현재 상황처럼 지자체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지자체 추진이 제대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의 민간사업자 편의 비주거 시설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시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보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만호 기자

“머물다 가는 남원 만들겠다”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는 머물다 가는 남원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머물다 가는 남원 조성에는 지리산 둘레길의 명성 회복 등 자연과 문화가 이어지는 명품길 조성, 산림욕, 맨발걷기, 자전거 촌코스 등 체육 레저활동의 트렌드 변화 반영,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남원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고, 국가예산 유치를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 운용의 효율 추구하는 한편 작은 예산으로 자연 활용 활성, 단기적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회복효과를 구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승필 민주 도의원 예비후보,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순창군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장승필 예비후보가 13일 순창읍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나선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순창읍 남계리 550-1 설의집 2층에 마련된 선거사무소 ‘더 필승캠’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 예비후보의 도의원 도전을 축하하고 순창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장 예비후보는 “개소식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10만호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부 정년 65세 연장 환영”

민주 이원택 의원 “전북 일자리 창출 역할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1일 “정부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압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가공무원위원회 권고를 정부가 수용해 고령 사회에 맞는 노동제도 개편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백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숙련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고령친화 일자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년 65세 논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노동체계 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북과 같은 고령화 지역이 이번 제도 변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고령일자리 정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 로컬푸드 어양점 영업 계속돼야”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 직매장 운영 공개협의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 소속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성명을 내고 “10년 동안 농민과 시민이 함께 일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영



영도 이달 1일부터 영업 중단이 강행되면서 농민과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적이다. 임 예비후보는 시민단체

영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어양점이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 온 지역 공동체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어양점은 연 매출 약 100억원 규모로 900여명의 농민 조합원과 1만7,000명의 소비자 회원이 참여하는 익산의 대표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전국적으로도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가 추진한 관련 등 의견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에

의 영업 재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영업 중단’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며 행정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익산시에 △한시적 사용을 통해 매장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민·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직매장 운영 개선을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로컬푸드직매장은 농민의 생존과 시민 먹거리가 만나는 지역 공동체인 만큼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만호 기자·익산=이재훈 기자

민주,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자 재심 ‘적격’ 결정

김영태 남원시장·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등 2명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재심위원회는 지난 9일 김영태 남원시장 출마예정자와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와 함께 세부 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역을 연결하는 200Km의 산들길 남원길, 복원지리산 둘레길 정비 및 관내 생태하천 경유하도록 요천(산동-금지) 축천(광치-왕정), 순자강(대강-금지), 탐천(운봉-인월), 신수천(신내)과 지류하천 연결하고, 사계 따라 대산 오리정 혼불문화관과 교통신정 복원 및 성곽 노선을 사내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